

반석, 샤론 2019/2020 겨울편지 no.54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덟 번째 성탄을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으며 인사 드립니다. 거리에는 매서운 찬 공기 속에 마른 나무 가지와 눈 대신, 소음과 먼지 가운데 푸른 나무에는 가끔씩 꽃들도 피어있지만 햇빛을 보기란 거의 힘든 전형적인 이곳 겨울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저희를 기억하며 보내주시는 성탄소포, 지인들과 나누는 성탄카드와 선물, 장식 그리고 성탄절 행사와 다양한 모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분의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여러 방식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이 복된 계절임을 알려줍니다. 여긴 성탄절에도 공식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고 매년 성탄의 도시풍경과 성탄절 상업화가 눈에 띄게 달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11년 처음 이 땅에 복된 소식이 전해진 후 약 100년을 지나 전쟁과 이념과 사상의 통제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도, 거대한 물질주의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다른 어느 도전보다도 그것이 복된 소식의 장애물이 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Narnia Book Club¹ (NBC)



9기 NBC는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 7권 <마지막 전투>로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NBC는 4학년들의 실습으로 없어지고, 샤론 선생이 가르치고 있는 HN 대학교에서의 두 번째 강의식 성탄 연주회(Lecture Concert, Christmas 2019)이후 새롭게 모집된 3명의 학생들이 추가되어 약 15명의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 오전에 모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9기의 특징은 2학년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토론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투>는 마지막에 모든 주인공들이 죽고 나니아 나라가 멸망하는 내용을 통해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어렵고도 진지한 내용을 작가 C.S 루이스가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두려워하고 있고 피해갈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주제를 놓고 학생들의 생각과 저희의 생각을 나누며 토론할 때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아슬란을 통한 영원에 대한 소망이 학생들에게 '들음'에서 '믿음'으로²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설날 전에 9기 NBC가 마무리 되고 마지막 시간에는 NBC 전통이 된 '나니아 하우스 콘서트'를 저희 집에서 개최하며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음악과 <마지막 전투>내용을 연결하고 정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9기 NBC 후반과 '나니아 하우스 콘서트'로 학생들과 더 깊은 신뢰와 우정을 마련하고 복된 소식을 듣고 믿게 될 새로운 학생들이 나타나 빙클링스(Vinklings) 제자훈련반과 현지 공동체에 연결되고 소속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¹ 2015년 9월부터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7권으로 구성된 영국 작가 C. S. 루이스의 판타지 아동문학 시리즈, 나니아 연대기(The Chronicles of Narnia)를 한국어 번역본과 현지어로 공식 번역 출판된 책을 부교재로 한 학기에 한 권씩 1년에 두 권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

² 요 5:24

V-inklings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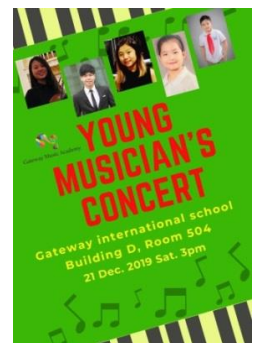
빙클링스 제자 훈련반은 한국어를 전공한 4학년 세 명이 지방에 있는 한국 기업체에 6주간 실습으로 흩어졌고,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프엉'과 '링'이 이곳에 남아 현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와 도전 가운데도 변함없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폼'은 고향 근처 한국 대기업에 토픽 최고 점수 6급을 받고 실습에 참여하게 되어 저희에게 기쁨을 주었고 '투'도 세상과 믿음 사이에 이리저리 저울질 하다가 토픽 시험 전에 샤론 선생과 며칠간 번역을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후, 다시 믿음을 결단하고 이미 2학년 말에 토픽 6급을 받은 '타잉'과 함께 또 다른 한국 대기업에서 실습 하고 있습니다. '폼'은 성탄 주일에 오빠를 현지 공동체에 초대해 함께 예배를 드렸고 '프엉'과 '링'도 공동체 성탄파티에 같은 방 친구를 초대해 복된 소식이 빙클링스 제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감사한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한국에서 유학하며 한국 공동체를 경험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온 '하'가 다시 빙클링스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를 다양한 방식으로 돕고 사랑해 주신 공동체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습 중에 있는 '폼', '타잉', '투'가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말씀으로 보호되고 그곳에서도 공동체에 속해 예배하도록, '프엉'과 '링'이 자신의 약함과 많은 유혹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보호되고 자라가도록 손 모아 주십시오. 또한 성탄에 초대된 '폼' 오빠와 '프엉'과 '링'의 방 친구 '땀'이 들은 복된 소식에 반응하고 나아가 현지 공동체를 기뻐하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호하고 완성되지 않은 암시와 아이디어를 찾는' 이 빙클링스 모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연결되며 '하'의 다음 스텝도 함께 노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Gateway Music Academy

GMA도 한 해를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 했습니다. GMA가 속한 학교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새로운 비자와 노동허가 발급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다녀와야 했던 긴 수속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2년 장기비자와 노동허가를 새롭게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손 모아 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로 현지 행정과 수속절차와 과정, 관료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방식들이 공공연한 영수증에 드러나 사회 공의와 정의에 대한 틀과 방향을 위한 이 나라의 구체적 제목들을 가지고 손과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GMA는 국립음대 영재 스쿨에 소속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일년에 두 차례 하는 'Young Musician's Concert'를 12월 22일에 개최했습니다. 제 방에서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지만 한 학생당 약 20여분의 곡을 외워서, 기말 실기시험을 대비한 연주회라 진지하고 학



³ 나니아 연대기 작가 C. S. 루이스와 J. R. R. 톨킨을 주축으로 1930년 초반에 만들어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관련된 문학 토론 모임. 잉클링스의 본래의 의미는 '모호하고 완성되지 않은 암시와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들'.

구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중하고 인내하며 연습한 학생들은 피아노를 통해 작곡가가 의도한 내용과 소리로 자신이 노력한 시간들을 표현해 내는 것을 기뻐하고 격려하며, 그렇지 못했던 학생들은 부족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연주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GMA가 소속된 학교가 신도시에 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면서 6명의 GMA 학생들이 2020년 9월 학기부터 신설 학교에 등록하게 되어 GMA도 그곳으로 이전해야 할지 이곳에 남아야 할 지 학교 이사진들과의 대화를 통해 적합한 결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GMA 현지 스텝들과 학교 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고 신뢰의 관계가 지속 되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HN University



HN 대학교에서의 두 번째 강의식 연주회(Lecture Concert, Christmas 2019)는 학교 60주년 행사관계로 약 3 주를 남겨두고 학교 측에서 최종 결정을 줘서 현지 연주자 섭외,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및 인쇄, 학생회 임원들과 소통, 펀드, 리허설, 연주회 진행과 해설까지 모든 것들을 3주 이내에 담당해야 해서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연결되어 있는 미래의 소중한 소망을 품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현지 더 많은 음악가들과의 신뢰의 관계를 갖기 위해 새로운 젊은 남성 피아니스트와 중년 바이올리니스트와 만나서 식사하고 리허설로 음악회를 준비하며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국립음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진들이고 피아니스트 '타익'은 자신의 제자 가족의 초대로 현지 공동체 성탄파티에 다녀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 강의식 연주회에 이어 NBC를 알리고 NBC로 초대하도록 샤론 선생이 현재 가르치고 있는 1학년 학생 중 4명을 선정해서 연주자들의 연주를 배경으로 한국가곡 '고향의 노래'⁴와 '산 노을'⁵을 현지어로 번역해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남학생과 여학생 각 두 명씩 샤론 선생의 지도하에 시를 낭송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이 연주회 이후 NBC에 참여하고 있어 1학년들의 NBC 모집에 교두보를 마련했고, 학생회 임원으로 도움을 주었던 한 학생도 새롭게 9기 NBC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작곡가의 작품 두 곡도 한국 작품과 더불어 연주해 청중들이 비교문화를 경험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학생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⁶를 연주하며 청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과 고뇌와 삶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베토벤의 이야기, 뵘랑의 '피아노 연탄곡 소나타'⁷를 연주하기 전에는 16세때 어머니를 잃고 18세때 아버지마저 잃고 소중한 선생을 만났던 프랑스 작곡가 '뵘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음악회를 통해 학생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강의식



4 김재호 시, 이수인 곡

5 유경환 시, 박판길 곡

6 L. V. Beethoven Sonata for Violin & Piano No.5 Op.24

7 F. Poulenc Sonata for Piano Four Hands

연주회에 벙클링스 제자 '폼'이 통역으로 제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 가치를 잘 전달해 주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현지 바이올리니스트와 바하의 <인간 소망의 기쁨이신 예수>⁸를 성탄의 내용을 담아 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청중들에게 앙코르 곡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격려가 되었던 것은 모든 연주가 끝나자마자 한 남학생이 무대로 달려와 악수를 청하며 이 강의식 연주회로 자신의 마음에 '빛'이 비추게 되었다며 고마워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식 찾아가는 연주회'가 정례화 되어 감상의 위치에만 있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변혁과 살롬의 실천으로, 그분의 창조 세계의 회복과 완성에 기여'⁹하는 시간으로 자리 잡히도록 손과 마음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N 대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문화와 정신과 삶에 다가가는 소중한 행사임을 인식하고 정례화하며, 이 일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단체가 마련되고 현지 연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사회적 책임 및 재능기부 문화가 형성되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니 2019년 마지막 날 매일성거 오늘 본문(시150)으로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으로 믿음을 노래하게 하셔서 감사가 됩니다. **의민, 의림, 의현 세 아이들도** 그런 한 해를 지내면서 더 그분을 바라고 말씀과 공동체 속에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의민이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도전 속에서 공동체의 기쁨과 사랑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대학원을 마무리하고 있고, 의림이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비자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 공동체와 연결된 분들과 친구들의 지원과 사랑으로 힘든 과정을 통과하며 또 하나의 영적 나이테를 가졌고, 의현이는 학교와 공동체의 신뢰와 복된 관계 속에 올해 예기치 못한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들을 쌓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지원을 위한 에세이를 수도 없이 쓰며 견디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아이 모두가 고난의 미래를 직시하고 도전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신실한 일상이라는 것, 위로의 본질인 고난의 길에 언제나 그분이 동행하신다는 사실¹⁰을 계속 배워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2019년 4월 인구통계로 9,600만을 넘어 1억을 향하는 이 땅 사람들과 NBC, Vikings, GMA, HN 대학교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현지인들에게 복된 소식이 2020년에 힘있게 전해져 모든 믿는 자에게 7원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¹¹이 되도록 그리고 저희 부부와 세 자녀들이 2020년에도 다가올 수많은 도전들 가운데 그분 안에서 신실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함성과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복된 새해 되십시오!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반석, 샤론, 의민, 의림, 의현 드림.

⁸ J. S. Bach Cantata BWV 147 "Heart and Mouth & Deed and Life"

⁹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행동하는 예술> IVP

¹⁰ 김근주 <특강 예레미야> IVP

¹¹ 롬 1:16